**삼상1503 Note**

**관리자 소견**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시나, 참 하나님은 잔인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데,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아마도 러셀일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런 무례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삼년 전에 깨달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 그 깨달음을 간단히요약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고적으로부터 계셨으며, 또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사실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히 또 영원히 사실 수 있으실까?

Ω롬0512. 그러므로 한 사람(안드로포스: 인간의 얼굴을 가진,인간,어떠한 사람,인류,사람,누구,성인 남자)에 의해 죄가 세상에로 들어오고, 또 죄에 의해 사망이 들어왔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로 지나갔으니 (디에르코마이:가로지르다,오다,떠나다,돌아다니다,해외로 가다,어디든지 가다,건너가다,통과하다,걸어나가다,빠져나가다,지나가다,횡단하다,뚫고 지나가다,여행하다,통행,왕래),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음이라.

롬0623. 이는 죄의 삯들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카리스마:(신성한)선물,(위험이나 고난으로부터의)구속,(영적인)증여,종교적인 자질부여,신비한 능력,(값없는)은사,부여된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생임이라.

죄가 사망을 불러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행0224.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오딘:고통,해산의 고통,재난)들에서 풀으신(뤼오:풀어주다,깨뜨리다,파괴하다,풀다,놓다,융해하다,놓아주다) 후에, 일으키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것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은 가능치 않았음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이 주장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외람된 말씀이오나, 하나님께 죄가, 어떤 흠이 있으시면, 그분께서 영존하시는 것도 장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은 그분께서 흠이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성상 그분은 죄나 흠과 공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자위를 위해서도, 그분은 죄나 흠과 한시도 같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그분은 아담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아담을 떠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의혹이나 반기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그분의 일을 잔인하다든지, 너무 하신다든지 생각하는 것이지, 그분에게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입신한 많은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있게 당당히 물어서, 예수님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긴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한 마디의 답변에 그들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예 질문이나, 의혹 자체를 갖기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아이까지 죽이신 것은 너무한 처사입니까?

여러분, 지옥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옥에 있는 그들이 불 가운데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마귀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 보셨어요?

이 땅에서 어린 아이를 무참하게 죽이는 것은, 지옥에서의 형벌에 비하면 그야말로 애들 말로 새발에 피입니다,

그것이 어느분의 결정의 처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 그분의 조치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준엄하심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측면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롬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크레스토테스:유용함,탁월함,인자함,자비,선함)과 준엄하심(아포토미아: 단호함,엄격함,준엄,날카로움)을 바라보라. 넘어진(핖토:떨어지다,넘어지다,마주치다) 자들 위에는 '준엄하심'이나, 만약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계속 머무르면(에피메노:머물다,머물러 있다,인내하다,계속하다,체재하다),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역시 잘려나가느니라,

어떻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는데 눈이 가리웠습니까?

우리의 선생들이, 우리의 목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가르쳐 주는데, 인색하였기 때문입니다, 강대상에서 그븐의 준엄하심에 대한 설교가 결여되었거나,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준엄하심을 설교하면, 많은 교인들이 이탈될까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있는 우리 성도들은 죄나 흠이 하나도 없어서, 천국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의 머리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1406.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며, 그 진리며, 그 생명이니라. 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1505.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내 안에 머무르고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그자, 바로 그자는 많은 열매를 내놓느니(풰로:참는다,감당하다,되다,참다,견디다,생기게 하다,오다,나오다,몰다,계속하다,놓여지다,인도하다,움직이다,감동하다,도달하다,돌진하다,지탱하다,지나다),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것,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피를 수혈 받아, 예수님과 같은 성품되어서, 예수님이 맺는 열애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귀의 열매를, 믿지 않는 자들의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에 나가고, 새벽기도 하고, 십일조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그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사후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같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가는 자들이 지옥에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은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악이 뿌리채 뽑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그분의 준엄하심을 바라보고 균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람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방약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는 제가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줄입니다.